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겔 34:26)

오늘, **성령강림 주일**

오늘 예배 강사

일시: 5월 28일(오늘) 1~3부 예배시
강사: 김한요 목사(미국 앨바인 베델교회 담임)



2023년 제 1차 유아세례 문답 및 세례식

유아세례 문답: 6월 4일(주일)
유아세례식: 6월 11일 찬양예배시
* 자세한 사항은 8면을 참조

금요 집회 강사

일시: 6월 2일(금) 금요집회시
강사: 탁지원 소장 (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다음 주일 예배 강사

일시: 6월 4일(다음주일) 1~3부 예배시
강사: 김희석 목사(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



전도훈련 (기본교육)

일시: 6월 3일(토) 10:00~12:00
장소: 제1교육관 404호
대상: 동역교회 전도지원 참여자 및 희망자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충만하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빈들에 마른 풀 같이”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는 에스겔 34:26-27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showers of blessing)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찬송가는 미국의 부흥사 다니엘 휘틀 목사가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1883년에 작사한 찬송시에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가 곡을 붙여 발표한 곡입니다. 성령 강림을 간구하는 찬송으로 이만한 찬양이 또 있을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번역이 좋지 않아 원곡의 의미를 감하는 찬양도 더러 있는데 이 곡만큼은 우리말 번역이 훨씬 은혜를 더하는 곡이 분명합니다. 갈한 내 심령이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지친 삶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기 통일선교 사역자 훈련

일시 및 장소: 6월 3일, 10일, 17일(3주간) 10:00~12:00, 베다니홀
강사: 최준호 목사(총신대 서울 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숭실대 통일학 박사)
대상: 각 교구 선교팀장 및 교육 희망 성도
신청 방법: 교구간사실 및 선교위원회에서 신청서 작성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제

충현 찬양 페스티벌

참가자격: 충현교회 등록교인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인원, 연령무관)
참가곡: 5분 내외의 찬양(장르 무관, 반주는 참가팀 준비)
신청기한: 2023년 5월 28일(주일)
일정: **예선**-6월 11일 ~ 6월 25일 **본선**-7월 21일(금) / 최종 8팀

충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찬양 축제!
찬양에 은사와 열정을 가진 충현인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상금: 1등 100만원, 총 300만원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김상열 장로 010-6214-7237
신청방법:



< QR코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7-8)



성경통독을 하며 참고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에 따르면,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시들을 모두 모으면 그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적 감정이 많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시인의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상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친밀한 소통방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나뉘는데, 각 권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도 대찬양시(145편-150편)라는 찬양으로 마무리 되기에 결국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총 150편의 시편 중 가장 많은 시는 사실 찬양시가 아닌 탄식시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혼미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가리켜 ‘삶이 어두워지고 혼미할 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과 구약의 문맥에서의 시편 2편

학자들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하는데,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이 서로 연관되는 수미 상관법에 의하여 두 편의 시가 하나로 묶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의인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데, 고통을 주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대적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 선언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 2:2)” 시편 2편 초반부에도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며, 의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 시편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변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평안(shalom)을 이루도록 특별하게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대적들을 비웃고(시2:2-3),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시2:6)이었으며, 대적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시2:9) 압도적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리라고(시2:11) 선포되었습니다.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 바로는 ‘아몬 신이 왕후와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왕위를 이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기록된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리라’라는 명령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졌습니다. 시편이 예언하는 특별한 왕,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 132:13-14)”,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시 132:17)” 시편 132편은 나의 사랑하는 자, 아들을 시온 산에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8절)” 그 아들에게 준 특권은 ‘구하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였습니다. 이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시편 2편 7절이 기록된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노래가 다윗에 버금

가는 특별한 왕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할 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이 구원의 큰 은혜이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신약성경에 직접 인용(행 13:33, 히1장, 히5장) 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1-22)” 시편 2편 7절이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 때 불렀던 시였듯, 예수님의 사역 시작 순간에 베풀어진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황제의 대관식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따랐고, 우리를 낳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6)”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우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부서는 언약공동체로서 장애우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리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관심을 갖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역이자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섬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1)” 에베소서 1장 3-14절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인데,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을 입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상속받고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은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언약이 성립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구하라! 정말 자유롭게 구하다보면, 그 핵심이 네가 원하는 바가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리라. 그 때 너희에게 이 세상을 온전히 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미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2편 7절과 8절의 핵심이자, 에베소서 1장의 복잡하고 긴 문장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왜 특권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땅 끝까지 힘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You Are My Son, I Gave Birth to You.

(Psalms 2:7-8)

Rev. Kyu Sam Han

According to "Reading Jesus" we are referring to while reading the Bible, the amount of the collection of the whole poems of the Old Testament is said to be more copious than the whole amount of the New Testament. Why did the Bible record such a great number of poems? This is because the more poetic feeling and deeper faith the saved people of God have, the more nature of a poet they tend to have. Since poetry is a method of friendly communication, through which people come to know their counterparts more deeply, God communicates with us, letting us know who God is and confess to God through psalms. The Psalms is made up of 150 poems in total and divided into five books, the end of each of which was provided with a concluding doxology, so that the Psalms is a Bible which consequently leads God's people to praise God. By the way, the most poems out of the total 150 psalms are actually poems not for praise but for lamentations. The Psalms shows the features of finding stability through communion with God in the midst of torments and bewilderments. That's why we can define the Psalms as the voice of God, which we can read when 'life is dark and confused'.

Psalm 2 in the context of the Psalms and the Old Testament

Scholars say Psalm 2 should be read together with Psalm 1. Psalm 1 begins with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and Psalm 2 ends with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We can see the two psalms are tied into one by the method of co-relationship in which the beginning and the end are related. Psalm 1 gives a lesson to live a righteous life by comparing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nd declares that even though there are enemies giving torments to you, if you are in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e enemies will eventually disappear. "The kings of the earth rise up and the rulers ban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Ps 2:2).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lso appear in the beginning of Psalm 2. The wicked are those who try to get out of the reign of the righteous, and the righteous are those who are anointed. It was declared through him to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he trembling(Ps 2:11). The ancient kings were called sons of gods. The ancient Egyptian king Pharaoh was 'a son who was born by the Egyptian God Amun's falling in love with his queen, and the king was also called as the son of God in Israel. However, in Israel, though the king was born as a descendent of king's family and succeeded to the throne, he could not naturally become the son of God, but when he accepted the order recorded in verse 7, 'proclaim the decree the Lord' and made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the king of Israel was called the son of God at last. A special king whom the Psalms prophesies about, and who comes to this earth, bearing the cross, rising again from the dead, ascending to the heavenly throne, and reigning this earth is a king of kings, Jesus.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saying,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saying, This is my resting place for ever and ever; here I will sit enthroned, for I have desired it."(Ps 132:13-14). "Here I will make a horn grow for David and set up a lamp for my anointed one."(Ps 132:17). Psalm 132 says 'I will install my beloved one, my son on Zion'.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v. 8). The Privilege given to the Son was 'If you ask, I will make you reach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connected to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Ac 1:8).

Through Jesus, by Jesus, in Jesus

After Psalm 2:7 was written, and till Jesus came, this song is likely to have been thought as a story about a special king second to David, but no one

might have applied it to himself. However, to have a confidence that you and I enter the place is the great grace of salvation as well as the evidence that Jesus is within you and me. Psalm 2: 7 is quoted directly in the New Testament(Ac 13:33, Heb 1, Heb 5), but there are places where it is indirectly quoted.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Lk 3: 21-22). Just as Psalm 2:7 was a poem sung at the enthronement of kings of Israel, the baptism of Jesus held at the moment of beginning Jesus' ministry came true like the coronation of an emperor. The word,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is the word given to us, children of God, and also can be a story applied to us. That's because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Jesus, by Jesus and in Jesus. To give birth to us was followed by Jesus' suffering on the cross, and there was a purpose for Him to achieve through giving birth to us.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assuredly that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Ac 2:36). The reason that Jesus was born as a being in nature of God was that he was sent to this world to become a person bearing the special work of God. Likewise, God gave birth to you and me as His children. With the resurrection of Jesus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and have received a mission. There are persons experiencing disability among the people of God whom God has begotten as his children. God is pleased with using the whole church, you and me in order to help for disabled friends to overcome sufferings and difficulties. The church and its departments as a community of covenant must play the roles of guiding and being together with disabled friends in order that they can acknowledge Jesus and further confess well their faith in Jesus. I wish the work would be the one which all believers are interested in and also the Lord's anointed ministry, and I give thanks to all of those who serve them.

"having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by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Eph 1:5). "In Hi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being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Eph 1:11). Ephesians 1:3-14 is a very long one sentence saying,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children, and 'predestined us to become a person of his inheritance'. The moment when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wants us to inherit the work and will of God and bear them. Since God had a plan, He gave birth to us and made us become His children. Therefore, we should be God's children who must know what His plan is, move according to it, and live for it. The privilege of God's children born according to the plan is to request to God. When the covenant was established, God says, 'Freely request! While you are freely requesting, you will come to ask what the core of what I want is, not what you want. At that time, I will give you the mission through which you can fill this world with My will, that is, the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his is the core of Psalm 2:7 as well as the gist of the long and complicated Ephesians 1. Dear everyone,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ll know clearly why God has called us, and why He has given us the privilege, and that we all should deliver the gospel powerfully to every nation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2023년 소망부 수련회 뒷이야기

소망부 수련회가 참 잘 준비된 수련회였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특강도 또 특히 찬양도 처음과 마지막 찬양이 아주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수련회의 백미는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손을 잡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 소망부 교사 정태동 은퇴장로

제가 아침 열차 타고 오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소망부에 가겠다고 너무 힘이 되신다고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일호 집사님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건강한 체조까지 다 배우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망부가 더 젊어진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소망부 교사 여신자 은퇴권사

소망부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리도 아프시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데도 오시는 것을 보면, 진짜 귀한 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너무 힘을 얻는다고 그러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못 오셨던 분이 그동안에 안 보이셨지만,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옛날에 알았던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 소망부 교사 윤희순 은퇴권사

모든 교사분의 협업하는 모습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에 참 귀했습니다. 수박도 들고 오시고 또 그냥 밑에서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저 또한 “믿음의 실천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무엇 뭘니 뭘니 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였습니다.

- 소망부 교사 신삼순 권사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또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데 오늘 많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릴 그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진짜 내 부모 내 자식보단 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걸 보고 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꼭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소망부 교사 최종익 안수집사

이번 소망부 수련회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 수련회와는 다르게 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소망부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소망부 남2과 8반 박덕양 은퇴장로

특히 좋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어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선선해서 좋았고요.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우리 나이에 적합하게 재미있게 옛날 노래도 하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 소망부 여1과 2반 백영자 은퇴권사

소망부 수련회 설교 말씀이 좋았고요, 이단 특강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영상이지만 성지순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담임목사님 내외분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악수로 환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 소망부 여2과 7반 구영인 은퇴권사

정말로 좋았습니다. 다 좋아서 울었습니다. 영상이지만, 성지순례 나왔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말씀에 은혜받았습니다. 소망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작에 소망부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이번 수련회로 더 들었습니다.

- 소망부 여3과 11반 김용배 은퇴권사



중현교회 소망부 수련회 2023.05.16



9교구 야외영성훈련을 마치고

5월 13일(토) 충현기도원에서



몇 년간 갈 수 없었던 영성훈련, 하루 전날에 계단에서 넘어져 상처 입은 몸으로 즐거이 달려간 만큼 기쁨이 백배였습니다. 애써 밤새 약으로 다스린 몸은 그 시간 동안 별 일없이 버텨주더니 즐거운 행사들에 앞서 선포된 말씀이 평소 제일 아껴 암송하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어져 우연일까요? 가슴 벅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행되는 순서들에 뜨겁게 환호함은 아마도 모든이들에게 열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였을 겁니다. 이날을 위해 밤새우며 준비했을 여러 봉사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는 자리였고 시간 시간 지루할 틈 없이 재능으로 섬겨주신 그 헌신들! 저희는 결코 갚을 수 없겠지만 천국의 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니 마음 든든합니다. 9교구에 속한 여러 지체들과 이번 행사를 통해 얼굴들을 익혔으니 오는 세월 동안 서로 아끼며 한 사람처럼 가족으로 사랑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다음 영성훈련이 기대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느껴지네요~~^^♡

- 김숙 권사

금번 9교구 영성훈련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교구 야외 행사 부재와 교구 통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어색함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구로 삼느냐였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씨, 연초록으로 새 옷을 단장한 나무들과 숲,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하셨던 기도원 성전과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는 열린 마음까지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박수를 연신 치고 있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시편 73편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시면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도리어 의인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종국적 멸망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결국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총력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자”고 말씀을 주셨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졌다.

- 고금신 권사

교구 영성훈련으로 교구 식구들은 삼년 만에 잔치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들떠 있는 것 같았다. 목모임에서도 함께 가자고 서로 권하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사 날짜에 따라 집 수리를 부탁하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수리 업자 시간이 되는 대로 해달라고 하였기에 토요일에 오면 어쩌나 염려하고 있었다.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러 화요일에 기도원 집회에 갔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자” 기도하고 왔다. 그 날 와서 깔끔하게 일처리 했다고 밤에 연락을 받았다. 토요일에 영성훈련에 가도록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원으로 출발했다. 모두들 소풍 나온 모습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월의 풍경 속에 모두 폭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즐기셨다. 14교구와 12교구로 섬기다가 9교구로 함께 모여 각자 오랜 습관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우린 하나라고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모두 아름다운 교제의 기술들이 있는 듯 했다. 풍성한 교구로 섬겨 주신 전 일꾼들의 헌신과 기도가 눈물겹도록 감사했다. 우린 이미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한 날이었다. 불참한 성도들이 아픈 건 아닌지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와 문자를 띄어 확인했다. 많은 교구 성도들의 먹거리를 위해 며칠 전부터 재료 준비부터 애써 손길들의 순교자적인 헌신과 식당 봉사로 힘써준 젊은 일꾼들이 몸살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형제들에게 나누기 위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해 왔는지.. 그저 놀라운 감동이었다.

- 임경순 권사



살롬 축복 전도 세미나 후기

충현교회 전도위원회에서 5월 13일(토) 제1교육관 504호에서 '살롬 축복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교구 전도회 임원들, 평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170명이 참여하였으며, 박진석 목사(반석교회)의 열띤 강의에 참가자 모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전도와 복음적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반석교회 박진석 목사의 세미나는 울림이 아주 컸다. 점점 그리고 빠른 시간에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각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전하는 방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진 시대... 이런 시대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PACE(Pray, Available, Contact, Example)-3C(Close, Courage, Care)을 제시해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함이라는 것을 뜨겁게 느꼈다. 본이 되는 나의 삶!! 전도대상자를 잘 살피고 성숙하게 관계하며 돌봄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삶이 실천되어지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한다.

이희연 권사(6교구)

거듭난 성도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막연히 전도해야지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진석 목사의 전도세미나 강의를 듣고 “기술적 전도”, “복음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기도 2.유용 3.접촉 4.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각박한 이 시대에 전도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또 그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이 다가서는 것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담대히 갖고, 예비신자들을 이끌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리된 복음적 메시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두드린다면 그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비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서수정 집사(2교구)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지만 이번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본다. 첫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회피하고 싶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복음의 초점의 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부족함을 알고 “기술적 전도” 방법을 알아 전도가 나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또 나의 삶도 발전적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데 “복음적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며 격려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범되는 믿음의 영성을 갖고 그의 곁에 항상 있음을 확인하며 필요시 공급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 먼저 가까이 다가가겠으며 그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하며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2)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고 3)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4) 십자가에 죽으셨고 5)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6) 영생을 주셨습니다. Lord My Savior! 전도자를 향하여 좀 더 가까이 접촉하면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의 대화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인도해주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앞으로 앞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지아연 권사(7교구)

충현동산 수해복구 장로회 자원봉사

지난 5월 20일(토) 충현 동산에서 장로회 기도회 후 충현 동산의 지난 여름 수해 이후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앞장 서서 땀 흘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글짓기 대회 입상작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독서감상문,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일: 5월 6일 (토)

글짓기

소속: 유년부 이름: 장아라 (연락처: 010-연계-에그스)

제목	나의 신앙 계명과 중현교회
나는 아담(Lv.-) 매일매일 아담(Lv.-) 매일매일 중현교회 만나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는 아담 중현교회는 90년 중현교회와 함께하며 누구나 행복하게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복음전파를 할 때가 매일매일 기쁨하며 말씀을 전할 때가
중현은 계명도에서 나를 영육간 사랑해	
예수님과 함께라면 동대리 중현교회 변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배척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Lv.1 Lv.10,000	

유년부 - 장아라(시,산문)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독서감상문,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일: 5월 6일 (토)

글짓기

소속: 초등부 이름: 안예은 (연락처: 010-)

제목	언제나 감사
건강해서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언제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슬퍼도 감사 가뭄에도 감사 언제나 감사	성령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눈이 오나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행가 드고 감사 언제나 감사	비가 오나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행가 드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
70주년에 감사 항상 지켜주시고 감사 언제나 감사	도모주셔서 감사 도모주셔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

초등부 - 안예은(시,산문)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독서감상문,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일: 5월 6일 (토)

글짓기 (시,산문)

소속: 중등부 이름: 서예은 (연락처: 010-)

제목	2023년 5월 6일
고맙습니다. 70주년 한결같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슬픈 시절 때 기쁨을 주는 보람찬 기쁨이 되어주세요. 끝없는 사랑과 사랑을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떤가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참여 세상의 눈길을 끌기 위한 기쁨을 주주세요. 평화까지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쁘게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쁘게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사랑의 기쁨을 주주세요. 고맙습니다.	

중등부 - 서예은(시, 산문)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독서감상문,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일: 5월 6일 (토)

독서감상문 (시)

소속: 고등부 이름: 이윤재 (연락처: 010-)

제목	독서감상문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어떤가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자신 있게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도회까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소통과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소통과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충현이든 소문만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현이든 소문만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부 - 이윤재(시, 산문)

2023년 제1차

유아세례 교육, 문답 및 세례식 안내

- 1. 유아세례교육 : 6월 4일(주일)까지 진행
- 2. 유아세례문답 : 6월 4일(주일)
- 3. 유아세례식 :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 4. 유아세례 일정

날짜	시간	교육내용		장소
5월 28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박요셉 목사	제1교육관 302호
6월 4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문답	해당교구 & 부서	
6월 11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 14:50까지 본당 입실		본당

금주 단기선교 파송 (스리랑카 1팀)

선교지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스리랑카 캔디	황경분 권사 외 18명	5월 31일(수) ~ 6월 7일(수)

금주 동역교회 파송 (9교구 2팀)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경북 사미교회	김웅호 안수집사 외 11명	6월 2일(금) ~ 6월 4일(일)

예배 담당(5/31~6/4)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5/31	수요 I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시 89:1-2) 권순동 목사	강성은	김미경
6/2	금요집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요일 4:1-6) 탁지원 소장	임진실	
6/4	주일 I	평화의 왕을 만나다 (시 88:13-18) 김희석 목사	김승래	김종훈
	주일 II		이성환	송영상
	주일 III		전영재	전성욱
	주일찬양	성실한 성전 수리자 (왕하 12:9-16) 임대영 목사	김유석	권재복

교구별 주력새벽기도(5/29~6/4)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9(월)	박요셉/윤상규	롬 2:1-16	전교인
30(화)	위안복/정인욱	롬 2:17-29	전교인
31(수)	이다현/이성훈	롬 3:1-20	전교인
1(목)	권혁근/오종학	롬 3:21-31	7교구
2(금)	이기영/김기홍	롬 4:1-12	1교구
3(토)	김승래/김승래	롬 4:13-25	전교인
4(주)	김유석/김유석	롬 5:1-11	전교인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중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이사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승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재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장	김주환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성훈 8교구	김유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신명철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김희영 유치부	이영미 유아부	박예령 영아부
------------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재균	윤영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웁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영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 집 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이다현 목사
- * 금주 기도원 봉사 : 1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이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